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26일(음력 2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672호

조계종 종회 본회의에 참석한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이 논의된 3월 20일 종회 본회의에 배석해 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에 열의를 보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176회 중앙종회 '포살·결계법' 통과

대운하반대·티베트사태 평화해결 성명 채택

조계종 176회 중앙종회(의장 자승)의 최대 관심사로 손꼽히던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이하 포살결계법)'이 가결됐다. 한반도대운하 사업 반대와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중앙종회 명의 성명서도 채택됐다.

또한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을 현행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했던 임기를 10년 단임제로 바꾸는 종헌개정안이 가결됐고 '불기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반회계는 세입 188억, 세출 17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15억원이다.

그러나 주목을 끌었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기준을 강화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차기로 이월됐고, 종회의원의 동국대 이사 겸직 금지를 포함한 '종헌개정안'은 1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94·98년 사태의 멸빈자 사면을 가능하도록 한 종헌 부칙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밖에 초심호계위원에 승오 스님을, 직능대표선출위원에 명신(통도사) 종렬(화엄사) 통광(범어사) 도진(직지사) 지선(백양사) 성타(불국사) 스님 6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동의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국가마다 다르게 쓰이는 불기(佛紀)의 통일을 위한 협의기구 조직 창설 제안서도 채택됐다.

<관련기사 2면>

여수령 기자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입적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진성(圓潭眞性) 스님(사진)이 3월 18일 오후 9시경 주석 중이던 예산 수덕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76세, 세납 83세. 수덕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등 애도 행렬이 이어진데 이어, 영결식 및 다비식은 3월 22일 수덕사 연화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졌다. <관련기사 4면>

여수령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법당에 아카시아 향기 가득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숲, 뇌를 깨우는 108배" 방영
절수행 도우는 편백,솔,아카시아 향기가 향방을 향방을 향인등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직접 뽑는 한국 최초 태우지 않는 향, 부처님 제일공양으로 식품공학과 연구분석성분표시와 실용특허의 신뢰는 물론, 직접 눈으로 보고 안고가는 스님의 발길이 전국에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없는 특허명품 향인등을 사찰에 드립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다향 합장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실용특허 제0164576호

집중기획 / 어린이청소년포교 현황·문제점

새싹불자 키우기

'주마가편'필요

〈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17일 어린이법회 저학년용 교재인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를 펴냈다. 종단 최초로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포교원은 지난해 '어린이청소년포교 원년'을 선언하고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러나 교구·교재 개발 이외의 사업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때문에 어린이청소년포교는 종책과 현장여건 모두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어린이법회 사찰은 800개로, 어린이법회 인원은 2만 4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법회 사찰 숫자는 약 200개에 머무르고 있다. 어린이청소년포교 2년차를 맞은 현재,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어린이법회 활성화 사업 교재개발에 밀려 뒷전
포교 시스템 구축·법회 지도자 양성 시급 과제

■어린이청소년포교 계획과 성과들

일반사회에서는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 불교계에서는 '어린이청소년포교'가 그에 비견될 만하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외쳐왔던 종단 내외의 목소리가 무색하리만치 사업계획도 성과도 없었던 분야가 어린이청소년포교다.

이에 포교원에서는 2006년 11월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포교원 포교부에 '어린이청소년팀'을 신설했다. 포교원에서 의욕 있게 새싹불자를 키워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한마음선원·안국선원 등이 연이어 포교기금을 기탁,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기금도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

포교원에서 2006년 발표한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은 △교재·교구 개발 △제도·조직 정비 △지도자 양성 및 관리 △포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있는데 현재도 이 로드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종단 어린이청소년포교 원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 개발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종단차원에서 각종 교구·교재 개발을 시행, 법회 현장에서 통일본으로 쓸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법회 '교과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지도자용 설법교안과 법요집·불교학교 지침서·법회 교재 등의 자료발간과 어린이법회 의식곡 CD제작, 청소년 법요집 및 음반 제작, 애니메이션·포교사이트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 등이 그 사업 성과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은 어린이포교사이트 '키즈 붓다' 개발로 2007년 중앙종무기관 종무평가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도 이번에 발간된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교재와 청소년 심성교육프로그램 지도 책자 등 교재 개발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1차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구·교재 개발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에서 올해와 내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포교현장 확대'다. 이제부터는 법회 운영 사찰들을 네트워킹 함으로써 어린이법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려는 사찰을 위해서는 법회개설지원팀을 파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법회개설지원팀과 프로그램교육지원팀을 각각 5개로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어린이법회 현장에서는 '대환영'이다.

■ '시스템과 인력'이 답이다

그러나 포교원의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사업이 교구·교재 개발에 집중돼 시스템 구축 및 법회 지도자 양성 지원 미비, 청소년법회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어린이포교의 전체적 틀, 즉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의 한 축인 법회교사 부족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 과제다. 한 청소년법회 지도자는 "대한불교교사대학 입학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올 2월에는 단 19명만 배출됐을 뿐"이라며 "포교원에서 어린이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만들기는 했으나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장이 침체 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말라했던 교구재 개발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스템 문제는 올해 사업 계획에 들어있고 이미 마련된 지도자 양성 공식 틀은 폭넓게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둘째는 청소년포교에 대한 지원부족이다. 어린이법회는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법회 참석자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법회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포교원에서 내 놓은 계획을 봐도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 심성교육프로그램 교재를 발간하겠다는 언급 정도만 있을 뿐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청소년법회 지원 문제에 대해 올해부터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라미타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사찰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파라미타 조한곤 국장은 "어린이가 바로 청소년이 되는데 이 연계 과정도 포교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파라미타 홈페이지만으로는 청소년법회 지도교사들의 네트워킹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어린이청소년법회 환경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사실이다. 2006년 11월 발표했던 사업 계획을 실천하려면 이미 본말사 사찰의 환경조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개설해야 할 사찰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는 1차가 끝났을 뿐이고 이번 달에 2차 조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한 어린이법회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법회가) 꼭 되어야 할 곳이 방치되고 있고 어린이법회를 하고 싶어도 한 달에 1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할 수 없어 못하고 있는 스님들도 상당수 있다"며 "시골사찰의 경우 차량지원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상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알림 / 현대불교의 상법상 회사명칭은 '(주)에이치비엠씨' 입니다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